

불교계 노동문제 해결 행보 이어간다

조계종 노동위, 17일 10만배 정진... 종교인 원탁회의 구성

날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교계의 행보가 두드러지고 있다. 조계종은 지난 8월 29일 노동자를 위한 무차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10만배 100일 정진에 들어갔다.

조계종 노동위원회(위원장 종호, 이하 노동위)는 9월 17일 대한문 쌍용차 노동자 분향소에서 '쌍용자동차 문제 조속한 해결을 위한 10만배 기도' 입재식을 봉행했다. (차주 상보)

100일 간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10만배 정진에는 조계종 노동위원회와 집행원, 불교시민사회단체, 각 노조 노동자,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 등이 참여하며, 정진의 시작은 노동위원장 종호 스님이 알렸다.

노동위는 정진이 어느 정도 정책되면 시민들이나 이웃종교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108배 행사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노동위원장 종호 스님은 "불교계 내부에서 노동문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불교적 실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0만배 정진을 진행해가겠다"며 "이번 기도를 시작으로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노동위는 >노사분규 현장방

문 >긴급구조지원 >노동문제의 불교적 해법 창출을 위한 공청회 개최 >장기 해고노동자 및 가족을 위한 템플스테이 등의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공청회는 오는 10월 30일 열리며,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가 주요 발제자로 참여한다. 해고노동자를 위한 템플스테이 해

분규현장 방문, 구호활동 예정
불교적 해법 도출위한 공청회도
종호 스님 "이벤트 행사 안해"

미황사에서 11월 중 개최된다. 이 같은 하반기 사업을 통해 노동위는 노동자와의 연대를 공고히 하고 불교계 전반에 노동인식 개선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종호 스님은 "매달 1~2회에 걸쳐 분규현장을 찾아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벤트성 행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교계 안의 노동인식도 매우 미약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들도 전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불교계를 주축으로 한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종교인 33인 원탁회의'도 9월 17일 수회관에서 출범 선언식을 열



8월 27일 출범한 조계종 노동위원회가 첫 행보로 쌍용차 분향소를 찾았다.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위와 불교계의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33인 원탁회의에는 불교를 비롯해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천도교 등 5대 종교가 참가한다.

원탁회의는 10월 13일부터 매주 대한문에서 국회의사당까지 10km 평화 순례에 들어간다. 이를 통해 사회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적 관심을 높인다는 게 원탁회의의 계획이다. 또한 사회 지도자들과의 면담과 각 종교별로 유가족을 위한 기금 모금 캠페인도 추진한다.

원탁회의 구성을 이끈 도법 스님은 "보수와 진보 등 진영 논리는 첨예해져가는 갈등 상황을 풀 수 없다"며 "죽음의 행

렬'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한국 종교를 대표하는 5대 종교가 문제 해결에 나선 것도 통합의 관점에서 사태를 풀기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계종 노동위가 진행하는 10만배 정진에도 결합해 갈등 해소를 위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시킨다는 계획이다.

양한울 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은 "노동위 10만배 정진은 3, 5만배가 이뤄질 때마다 법회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 법회에 원탁회의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시로 읽는 성보순례

국보 제75호 표충사청동함은향완



표충사 청동함 은향완

이 우결

공양구여 공양구여

향기로운 공양구여

어지러운 고려의 뜰 한편에 숨어서

간절히 바치고 싶던 마음의 그릇이여

청동

은입사

균형 잡힌 품격 안으로

얼마나 많은 백성의

기원이 담기고 쓰며

오늘도 시정을 향해

잠 못 들고 계시은지.....

〈국보사랑 시집-불멸이여 순결한 가슴이여〉 중에서

이우결 시인은... 1946년 경남 창녕 출생. 1972년 〈현대시학〉으로 등단. 시집 〈 지금은 누군가 와서〉, 〈저녁 이미지〉 등.

진각문화전승원 10일 입주 시작

개관 헌공불사 10월 30일 봉행

진각종 진각문화전승원이 본격 입주를 시작했다.

진각종은 9월 10일 '통리원 건물철거 및 진각문화전승원 입주원만불사'를 진각문화전승원 1층에서 봉행하고, 중앙종무기관 등의 입주를 했다.

성호 종인을 비롯해 통리원장 혜정 정사, 학교법인 회당학원 이사장 효운 정사와 서울교구 스승 및 종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불사는 오불예참과 정공 및 강도발원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통리원장 혜정 정사는 이 자리에서 인사말을 통해 "오늘은 진각종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뜻깊은 날이다. 전승원 천정은 마치 하늘을 향해 뿔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진각성존의 원력이 다시 우리에게 내려온다는 의미의 표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진각종은 10월 30일 진각문화전승원 개관 헌공불사를 봉행할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 kimj4217@nyunbu.com



진각종은 9월 10일 진각문화전승원 입주원만불사를 전승원 1층에서 봉행했다.

"합의 통한 쇄신안 높이 평가돼야"

도법 스님, 쇄신위 간담회서

조계종 종단쇄신위원회 부위원장 도법 스님은 9월 12일 교계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현재 쇄신안 추진 경과에 대해 밝혔다.

스님은 쇄신위 △승가청규 △종단종무쇄신안 △선거제도 △승가복지제도 등을 종단 쇄신 4대 의제로 정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쇄신위는 먼저 본사 주지선출 관련 급품선거 등 많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산중총회법을 논의해 9월 총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종단 쇄신에 대해 도법 스님은 "종단이 비상사태에도 종헌 기구를 유지하고 대중공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는 한국불교가 진일보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한편, 쇄신위는 오는 11월 총회 이전에 각종 선거제도 관련 종합법, 총회 이후에는 종단종무쇄신안과 승가복지제도 쇄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중일 기자

'E-러닝' 강좌 열풍, 하반기에도

조계종교육원, 승가교육 동영상 강좌 진행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2012학년도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다 지방 승가대학에서 이뤄지기 어려운 개편교과목에 대해 동영상 강좌를 시행한다"고 9월 13일 밝혔다.

2학기에 진행되는 동영상 강좌는 >세계종교의 이해 >중관 사상 >불교와 동

서철학 등이며, 성해용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교수, 김성철 동국대 교수, 김종욱 동국대 교수가 강사로 참여한다.

각 강좌는 12주 분량이며, 40분 24개로 구성돼 있다. 교과목별로 강의자료도 함께 제공해 학인 스님들의 학습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신중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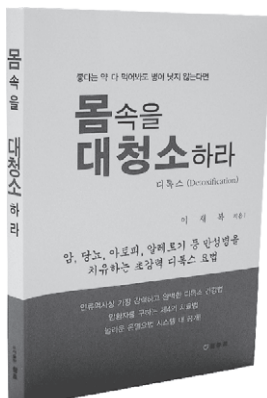
그림을 보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 단체주문 책도 이재복 지음(270면) 정가 12,000원



사은 행사

정골요법을 구입하시는 분에게 드리는 무료증정품



이재복 지음(270면) 정가 12,000원

이 운동으로 죽을 병 고친사람, 몸이 건강해진 사람, 정력이 강해진 사람, 무수히 많아, 누구든지 하기만하면 제 병을 제가 고치는데 안하니까 문제여... 이 운동은 무병장수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여! (본문에서)

골격이 비뚤어져서 생기는 병은 골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모든 내장질환의 발병원인은 골격이 비뚤어져 척추 신경이 눌려서 발생한다는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중다는 곳 다 다녀보고 돈은 돈대로 없애고도 고통이 계속되는 분들의 종결 코-스

침, 뜸, 부항, 약물치료, 물리치료, 주사요법, 무중력감압치료, 수술을 받아도 여전히 고통이 계속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치료받을 때는 좋아지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재발하는 이유는 척추를 감싸고 있는 기립근육을 풀어주지 않고 척추의 토대인 골반을 바로 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스스로 골격을 바로잡아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십견, 허리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좌골신경통, 갑상선, 관절통, 고혈압, 당뇨, 안면마비, 위장병, 수족냉증, 두통, 이명증, 전립선, 피부병, 백반증, 아토피, 알레르기, 건선, 부정맥, 만성피로, 상기증은 골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20여년간 수십만명이 체험한 건강법을 지도 합니다. 단, 한번만 체험해 보시면 곧바로 확신이 옵니다.

이 운동으로 지긋지긋한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 골반변형이 만병의 원인. 편안하게 누워서 골반과 전신의 균형을 바로잡는 법 수록
- ▶ 퇴행성 질환을 예방하는 발가락 운동과 뱃속의 단단한 덩어리인 척추(냉직)를 쉽게 푸는 법 수록
- ▶ 양쪽다리 길이가 길고 짧은 것을 손쉽게 바로잡아 전신의 균형을 바로잡는 법 수록
- ▶ 비뚤어진 척추를 스스로 바로잡고 전신의 막혀 있는 경혈을 뚫어서 질병의 뿌리를 뽑는 법 수록
- ▶ 악어가죽같이 단단해진 어깨근육, 기립근육 좌골근육을 아주 쉽게 풀어서 통증을 뿌리 채 뽑는 법 수록
- ▶ 단침이 몽글몽글 솟아나며 전신의 자장을 높이고 몸속의 냉기를 확 뽑아내서 체온을 높여주는 기지개운동법 수록

중다는약 다 먹어봐도 병이 낫지 않는다면 몸속을 대청소하라

독소가 우리몸을 공격하고 있다. 만성병이 잘 낫지 않는 이유는 독소가 짙어있기 때문이다. 현대인의 만성병을 이기는 놀라운 디톡스요법 공개!

몸속에 쌓인 독소와 뼈속에 들어있는 냉기를 짙~ 뽑아내서 자연치유력을 높이는 동양의학 역사상 가장 놀라운 건강법 수록!

- 책 구입안내
책값 12,000원을 입금하시고 전화로 주문하시면 책2권을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 농협계좌 : 751017-52-024285 예금주 김 순 옥
 - 위 치 :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리 901 소백산수련원
- 책신청 : (054)637-9810**